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1호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 626 각 영혼의 선택 <영어 + 23개 국어 자막>

1998. 6. 7. 미국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참뜻을 설명하시면서 고대 이슬람교도들의 관습인 '일부다처제'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밝혀 주신다. 또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가족과 종교적인 믿음이 다를 때 깨달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나누는 동시에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직관'과 '느낌'의 차이점은? 비단이나 가죽 제품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주의 게임 중 각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름길은 없는가? 끝으로 스승님은 물질 세계의 긍정과 부정, 생활이란 드라마에서 각 영혼들이 맡는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 CD-CE06 본래 업장이란 없다 <중국어 + 대만어 통역>

1986. 7. 13./15. 포모사 타이베이 초창기 스승님의 강연



**내용 요약:** 처음 출시된 귀중한 이 CD는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대중 강연을 시작하시기 전 초창기의 주옥같은 법문을 편집한 것이다. 이 CD에서 스승님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신다. 인간의 탐진치(貪瞋癡)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의 명상이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좋지 않은 까닭은? 스승님은 명상 상태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명상은 항상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고의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꿈과 명상 중에 보이는 환영의 다른 점은? 명상 중 운몽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 MP3-CR14 <중국어>

1992. 9. 27.-28. 포모사 시후 선이/ 10. 10. 포모사 시후 선일

1994. 4. 1.-4. 홍콩 선삼

### 내용 요약

1. 독립 생활의 이로움.
2. 중생을 구하는 최고의 방법.
3. 신의 창조에 담긴 오묘함.
4. 독사와 황금.
5. 일곱 단지의 황금.
6. '나사(螺絲)' 법문.
7. 만물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8. 중도를 따르라.
9. 생선 장수 이야기.
10. 개의 해-어린이들에게 해주신 이야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앞표지 안/ 22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MP3

- 2 **스승님 말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
- 4 **제일선에서**  
문화와 영성의 어울림: 제24회 파리 도서전
- 8 **다채로운 이벤트**  
베닌/ 카메룬/ 캐나다/ 대한민국/ 포모사
- 15 **행사 메모**
- 16 **스승님께 드리는 어머니날 및 생신 축하 카드**
- 18 **사제지간의 편지**  
신의 가장 영광된 방식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19 **스승님의 농담**  
어머니 말씀이 최고/ 사장이라서 좋은 점
- 20 **신기한 감응**  
칭하이 데이에 태어난 우리 아기/  
완벽한 안배 속에 치러진 입문식/  
스승님의 축복으로 헤라클레스가 된 약골
- 23 **골라 뽑은 수행문답**  
만사가順利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어떻게 예고를 줄일 것인가/  
신의 유능한 도구가 되라/ 긍정과 부정을 초월하라/  
신을 찾을 때 황금시대가 온다

# 차 례

- 27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전능한 힘에 의지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 2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류로써 세세생생 누적된 습성을 지워라
- 32 **영원의 찰나**  
역경 속에 빛난 영성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영감 어린 작품들
- 34 **채식 시대**  
세계보건기구: 높은 목표, 눈부신 성과/  
날로 더해 가는 채식 바람이 세계 평화를 돕는다
- 35 **감로벌어**  
삶의 밝은 면을 보라
- 38 **시**  
당신께 입문하며
- 39 **지혜어록**  
동식물의 집착에서 음식의 자장까지/  
아힘사와 채식-영생을 얻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율
- 4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석공 이야기-깨달아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 45 **사랑의 실천**  
태국/ 홍콩/ 포모사
- 49 **감사 편지**  
미국/ 이란
- 50 **관음 웹사이트**
- 51 **전세계 연락처**
- 56 **무상예술**  
농음-순도 높은 창작성/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작품/  
2004년 S.M. 천의 봄·여름 컬렉션

출판일자 : 2004. 7. 16.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1호





##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라

정하이 무상사/ 1997. 12. 25. 미국 워싱턴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10

우리는 때로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그다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너무 많거나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교를 하지요. 과거와 비교를 하고 환상적인 가상의 미래와 비교를 함으로써 현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삶을 결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명심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라는 점과는 별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두뇌를 훈련시켜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 나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스승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스승을 만든 거죠.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들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이며 우리의 학습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신은 여러분 자신이 고통스런 방식으로 배우길 선택한 게 아니라면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업장이 씻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잘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다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만큼 그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도 잊으세요.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은 모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리느라 현재를 잊고 생활을 잊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우리가 음미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데 뭐 하러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인내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해결될 수 있고 누구든 변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모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일종의 절규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

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나쁜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지혜를 써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글로 써 본 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명상이 충분하다면 삶의 모든 면이 좋아질 것입니다.

명상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가르침 역시 중요합니다. 최소한 스승의 가르침을 매일 읽거나 듣도록 하십시오. 만약 나의 가르침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세요. 아니면 성경이나 불경을 보십시오. 보다 많은 내용이 있을 테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만을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스승들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두뇌를 다스려야 합니다. 두뇌에겐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영혼에겐 필요가 없지만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혹은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발견할 때마다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뇌를 제법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훌륭한 가르침과 경전을 읽고 그 말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명상한다고 앉아만 있으면 자신이 왜 명상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두뇌는 안정이 되지 않아 삼매에 들 수 없으며, 나중에 훌륭한 지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 명상까지 하는데도 아직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고 이런저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 적어도 여러분의 양심만큼은 평온합니다. 때가 되면 그런 나쁜 성향은 자연스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장이 매우 뿌리 깊고 세세생생 계속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기도 합니다. 매일 한 길만 달리던 말이 나중에는 주인이 없어도, 혹은 눈을 가리고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선로를 달리는 기차처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의 습성을 견디다 못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 문화와 영성의 어울림

## 제24회 파리 도서전



제24회 파리 도서전(Salon du Livre de Paris)이 2004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베르사이유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서전이 생긴 이래 최초로 '중국 문학'을 주제로 열렸으며, 프랑스 내 '중국의 해'를 기념하는 주요 문화 행사 중 하나이기도 했다. 파리 센터 동수들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이번 도서전에 참가해 새로 나온 중문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와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중심으로 스승님의 출판 간행물을 선보였다. 도서전 기간 중에는 대만국립대 사학과 교수를 지낸 루안즈성 선생과 포모사 침구 의학회 총 간사를 역임한 린명스 박사의 초청 강연도 진행되었다.







세계 26개국 1,030여 출판사가 참가한 올해 행사의 주빈은 중국이었다. 중국 전시 구역과 통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자리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부스는 동수들이 멋지게 꾸며낸 덕분에 우아하고 편안한 영적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날 전시된 스승님의 다채로운 출판물들이 책상의 순백색 망사 천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분홍색과 흰색 난이 그 사이를 점점이 수놓았다. 스승님의 만세등이 부드럽고 성스러운 빛을 발하는 부스의 중앙에서는 스승님의 DVD가 끊임없이 상영되었다. 마주 보고 있는 중국 전시장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기운이 가득 퍼져 나오고 우리 부스에선 순수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어 이번 도서전은 문화와 영성이 아름답게 융화된 멋진 행사였다.

## 중국 작가들과의 교류

3월 18일 저녁, 도서전 개막식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시라크 대통령은 통로를 따라 늘어선 도서전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우리 부스를 지날 때는 한 사자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개막식에서 동수들은 손님들에게 무료로 채식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이에 여러 방문객들과 이웃 부스 관계자들은 동수들의 따뜻한 환대와 우리 부스의 편안한 분위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는 한 중국 시인은 동수에게 “여러분 부스에서 느껴지는 영적 기운에 끌려서 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제공해 준 채식 음식도 아주 특별하더군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라고 말했다. 계속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가 중국, 홍콩, 포모사 및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작가 중 이번 중국 문화 관련 행사에 초청된 40인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같이 채식 음식을 시식한 동료들도 중국 작

가 대표단에 소속된 저명한 작가들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동수들은 개막식에서 저명한 귀빈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면서 방명록에 사인을 부탁하고 중문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와 스승님의 강연 DVD를 선물했다. “이 중문판 책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모사에서는 매진 사례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권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 중국 대륙 독자들이 되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동수들의 말에 작가들은 기쁘게 선물을 받고는 돌아가서 꼼꼼히 잘 읽어 보겠다고 얘기했다. 잠시 후 다른 중국인 작가 한 사람이 황급히 부스를 찾아왔다. “모두들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것은 없나요?” 유명 작가의 천진난만한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그의 갈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즉시 책 한 권을 주자 그는 그제야 기쁜 모습으로 부스를 떠났다.

## 확연히 눈에 띄

## 세계의 영성 고양

도서전 기간 동안, 우리 부스에는 방문객의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다. 손님들은 책과 견본책자를 요청하거나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면서 수행에 관해 문의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견본책자를 받고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배포된 견본책자는 엿새 동안 총 6천 부에 이르렀다.

스승님의 여러 간행물 중 만화로 보는 지혜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와 국제 채식 요리책 『무상주방』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이 밖에도 스승님의 시집과 예술 창작집, 악보집 등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연령과 취



향이 다른 모든 애호가들을 두루두루 세심하게 돌보시는 스승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출판업계에서 수년 동안 일해 왔지만 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 형태의 간행물을 출판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참석자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이 말은 깨달은 스승의 위대함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깨달은 스승은 풍부하고 다양한 형식,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면의 진아를 찾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 무한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며 인류의 마음과 영혼을 고양시키신다.

최근 인류의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이 수준 높은 영적 가르침을 점점 더 잘 받아들이게 되어 도서전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 또한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스승님의 지혜에 큰 감탄을 금치 못했다. 9세가량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견본책자와 관음법문에 관한 전단지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중 한 소년은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이건 명상에 관한 거

야. 그러니 잘 보관해야 해!”라고 외쳤으며, 학교 도서관에 걸려고 한다면서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요청하는 소년도 있었다. 또 그들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나눠 주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다른 많은 청소년들도 수행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 15, 6세 정도 되는 한 프랑스 소년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손에 쥐고는 확고한 목소리로 외쳤다. “명상을 배우고 싶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밖에 한 중국 여성은 개막식 때 동수들에게 받은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를 다 읽고는 우리 부스를 며칠 연달아 찾아왔다. “잠 잘 때는 아주 편안한데, 일어나면 그 느낌이 바로 사라져요. 이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 세계가 환상이란 걸 이해했으니 진짜 세계를 찾아야겠어요.” 동수에게 이렇게 말한 그녀는 나중에 방편법을 배웠다.

베이징 민간 문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리 선생은 스승님의 간행물을 살펴본 후 “이렇게 좋은 책들은 중국에서도 출판돼야 합니다.” 하고 감동에 겨워 말하면서 중국에서 스승님의 간행물을 출판하는 구상을 자신의 작업 계획에 넣겠다고 덧붙였다.

20대의 프랑스 청년은 우리 부스를 방문하고선 “도서전을 통틀어 가장 멋진 부스군요!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말을 들으라고 하는 듯했으며, 또한 부스를 찾은 다른 방문객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접한 후 행사에 참여했던 동수들이 느꼈던 일치된 생각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세계의 영성이 분명히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 성공적인 흥법 세미나

3월 23일 오후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전





시장의 '살레 세레니떼' 홀에서 세미나를 두 차례 가졌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린머스 박사가 '고대 중국 의학의 관점에서 본 원기, 기(氣), 정신'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고, 루안즈성 교수에 의해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내면의 명상과 신성한 소리, 즉 빛과 소리에 대한 중국 고대의 도가(道家)식 명상이 다뤄졌다. 두 차례 모두 만원을 이룬 세미나에서 두 강연자는 이



들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 경험 및 학술 연구를 통한 통찰력을 함께 나누면서 영혼의 고양과 개인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가 끝난 후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배웠는데, 그 중 한 프랑스 여성은 명상 중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를 봤다고 황홀해했다. 또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은 눈을 감고 스승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화신 스승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루안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신사는 자신이 이전에 '이명(耳鳴)'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좀더 발전된 토론을 요청했다.

## 홍법의 이로움과 축복

6일간의 파리 도서전은 금방 지나갔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동수들은 오랫동안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느꼈다. 이러한 축복은 많은 영혼들이 고양되었음을 직접 목격하고 황금시대에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에 기인한 것이다.

파리 센터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지원하고 지지해 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팀과, 루안 교수와 린 박사로 구성된 '사랑의 소명단'에 깊이 감사하는 한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렸다. 이번 도서전은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각자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번 도서전 행사는 썬 TV '예술과 영성' 제88권에 방송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 베닌 소식

## 진리의 빛이 베닌을 빛내다

아크포 테너스/ 코토노우



[코토노우] 코토노우는 경관이 아름답고 햇살이 좋으며 바다가 넘실거리는 휴양지이다. 베닌 센터 동수들은 2004년 3월 13일 한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틀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는 라디오 방송에 행사 안내 광고를 내보내고 전단지들을 나눠 줌으로써 서둘러 주민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렸다.

강연회 당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을 안고 강연장에 도착한 청중들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비로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 빠져들었다. 스승님의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라면 인류가 평화와

사랑, 안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셨다. 비디오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스승님께 입문한 후 일어난 자기 삶의 변화를 발표하고 이어서 관음사자를 소개하며 말씀을 청했다.

관음사자는 조금 전에 시청했던 비디오테이프의 내용과 특히 오계와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청중들의 지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한 후 관음사자가 방편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자 놀랍게도 모든 청중들이 손을 들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동수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새로운 관음 가족을 열렬히 환영했다.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 동안 손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후 백 명이 넘는 손님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을 전수받고 명상하는 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베닌 센터의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한 손님은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도 명상 중 온몸이 빛나는 화신 스승님을 보기도 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만족과 기쁨, 깊은 감동을 느낀 손님들은 모두 자신들이 접한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다. 동수들은 새 관음 가족들의 즐겁고 행복한 얼굴을 보며 그들이 이미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엔 많은 사람들이 완전 채식을 시작하며 입문을 신청했다. 이번 행사는 동수들에게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흥법 행사였다!







## 카메룬 소식

## 카메룬 최초의 비디오 강연회

코코우 도드지 오피사/ 두알라

[두알라] 최근 단 이틀 만에 준비를 끝내고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베닌 센터 소식에 고무된 카메룬 동수들은 관음사자의 도움을 받아 2004년 3월 17일 두알라 센터에서 카메룬 최초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강연회 소식을 알리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또 인근 지역에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동안 많은 축복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전단지를 만든 인쇄소 사장은 동수들의 신실함에 감동되어 강연회에 참석했으며, 한 사형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동안 만난 행인에게서 이 강연이 매우 신성한 행사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해 달라는 격려를 받기도 했다.

강연 날 두알라 센터 앞뜰에는 대형 영사기가 멋지게 설치되고 의자도 100석 준비되었다. 이곳 동수들에게 있어 영사기와 대형 스크린을 빌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기적처

럼 한 가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 있었으며, 가게 주인은 선풍기 기술적인 도움까지 제공해 주었다. 스승님의 강연 DVD가 임대한 DVD 플레이어를 통해 밝고 깨끗하게 나오자 생전 처음 대형 스크린으로 선명한 영상을 보게 된 작업 팀과 손님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들이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매혹된 나머지 DVD가 끝난 후에도 스승님의 강연을 더 보고 싶다고 요청해 상영 시간이 1시간가량 더 연장되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관음사자가 관음법문과 방편법에 대해 소개하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청중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폈다. 이후 일부 손님들은 방편법을 배웠다.

관음사자가 방편법을 전수하고 나서 새로운 수행자들에게 내면의 빛을 보았느냐고 묻자 많은 이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한 사형의 아내도 있었다. 그녀는 강연회

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무척 배타적이었으며 사형이 입문을 한 수행 초기엔 수시로 괴롭히기까지 했다. 그러다 사형이 수행을 한 이후로 마음과 행동이 엄청 좋게 변하는 걸 보고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소지품까지 뒤졌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자 결국 센터에 가서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강연을 듣고 난 그녀는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명상하는 동안에는 내면의 빛을 보고서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풀어지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지난날을 참회하고 자신의 무지에 대해 신께 용서를 빌었다.

강연회가 끝났을 때 사람들 모두 기쁨과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두알라 센터의 사형사저들은 이 귀중한 첫 번째 비디오 강연회를 열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런 행사를 더 많이 열고 싶어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황금시대를 환영하다

투안 두옹/ 오타와

[오타와] 2004년 4월 25일 오타와 동수들은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사랑하는 스승님의 은총으로 황금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영성이 다시 한 번 고양된 것을 경축했다.

강연회가 시작되자 먼저 한 사제가 나와 관음법문을 간단히 소개한 후 수행을 통해 얻은 이로움을 청중들과 함께 나눴다. 애기 도중 그녀는 스승님이 파리에서 자신의 연로한 어머니를 입문시켜 주신 데 대해 크게 감사하고 감개무량해했다.

스승님의 약력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에 이어 '신을 위한 햇불이 되라' DVD 강연이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며 동감을 나타냈는데, 특히 질의응답 부분을 볼 때는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찬성의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청중들의 열렬한 관

심으로 인해 강연회가 당초 계획보다 연장됨에 따라 청중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행사 전후로 작업 팀은 스승님의 힘이 행사 계획과 조직 전반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 전에 지방 신문사와 접촉하고 전단지과 포스터를 배포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는 신실한 구도자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타와의 제자들에게 무아의 봉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함께 일하며 영성의 여정에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스승님께 바친 의미 깊은 주말

선피/ 런던

[채텀] 온타리오 동수들은 4월 3일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업적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여성 엑스포'에 참가한 데 이어 4

월 4일에는 채텀 트래블로지 호텔에서 무료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두 행사로 인해 4월 첫째 주말은 스승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칭하이 주말'이 되었다.

작은 채텀 지방에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여성 엑스포'가 열리던 날, 우리 부스를 지나치던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스승님의 법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관심 있는 손님들은 관음법문을 소개한 무료 전단지를 감사히 받아 갔으며, 어떤 사람

들은 전에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다면서 놀라워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다음날에도 이번 주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신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스승님의 흠잡을 데 없는 강연을 듣는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강연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법을 신청했다.

여성 엑스포와 비디오 강연회 동안 참으로 비범하고 걸출한 여성인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느꼈다. 온타리오 동수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로움을 얻었길 바라는 동시에 신의 완벽한 안배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 대한민국 소식

### 영동 센터 봄맞이 단장

한국 뉴스그룹

[서울] 4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 동수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선이 행사와 식목일 식수 행사를 가졌다. 선이를 끝낸 후 점심 식사를 마친 동수들은 새로 신축된 명상홀 주위에 160여 그루의 소나무와 500 그루의 철쭉과 영산홍, 11박스의 야생화를 심었다.

영동 센터의 야외 대명상홀은 국제 선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으나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하기가 힘들었다. 이 때문에 동수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명상홀이 작년 12월에 완공되었다.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명상홀에는 4m×5.5m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스승님의 비

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공사는 끝났지만 환경 미화 작업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동수들은 이번 식목일을 맞아 여러 그루의 소나무와 꽃들로 명상홀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다. 사형들은 나무들을 옮기고 심는 일을 담당했고, 사저들은 계곡을 청소하고 평화로운 센터 곳곳에 피어난 봄나물을 캐며 즐거워했다.

조경을 담당할 장주가 나무를 사러 시내에 나갔을 때 가게 여주인은 장주의 승복 차림을 보고선 사찰에 심을 것이라고 생각해 소나무를 아주 싸게 제





공해 주었고 다른 많은 나무들도 무상으로 보시했다. 동수들과 얘기하며 최고의 가르침을 접한 그녀는 방편법까지 전수받았다.

영동 명상홀 조정 작업은 앞으로 한 달간 계속되는데, 5월 중에는 동수들이 야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나무 그늘과 시원한 연못 등을 조

성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스승님의 말씀으로 더욱 빛을 발한 빗고을

한국 뉴스그룹

**[광주]** 2004년 4월 25일 일요일, 빗고을 광주의 남도 예술회관에서 영상 강연회가 열렸다. 50여 명의 동수들은 두 달 전부터 행사 준비를 시작해 광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강연회를 치러 냈다.

강연회 소식을 알리는 동안 황금시대 대중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양된 반응을 보여 주었다. 동수들이 강연회 포스터를 붙이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냈는데, 그 중 한 노부부는 스승님의 포스터를 보고선 집에 붙여 두고 싶다는 한 장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히 땅에 떨어진 스승님의 포스터를 주워서 스승님의 사진을 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벅찬 환희와 감동을 받아 그 포스터를 집에 가져가 붙여 두었다. 그는 강연회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결국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강연회 당일에는 약 1백여 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스승님의 강연 말씀을 경청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

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스승님의 출판물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회에 온 사람들은 스승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승님의 책을 여러 권 읽어 보았다는 한 참석자는 “항상 위대하신 스승님이라 생각해 왔는데, 오늘 역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전을 통해 빛과 소리의 명상이 진리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편법을 배운 후 이 사실에 일부분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외 관심을 가진 10여 명의 손님들도 방편법을 배웠다.

이날 강연회엔 참석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방편법을 배우지 못한 어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견본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난 뒤 이 삶의 마지막을 칭하이 스승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센터까지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려와 방편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10년 전부터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포스터와 웹사이트를 보고 센터로 찾아와 방편법을 배운 사람, 택시 운전 때문에 뒤늦게 센터를 찾아온 택시 기사 등, 영상 강연회가 끝난 뒤에도 센터를 방문하는 손님과 명상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빗고을 광주는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아름답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고 빛으로 충만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되었다!







## 포모사 소식

## 어린 수행자들을 위한 지상 천국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포모사에선 오랫동안 4월 4일이 어린이날로 지켜져 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정부 지침으로 어린이들이 이 공휴일을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부녀자의 날’과 합쳐지게 되어 ‘부녀자와 어린이의 날’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올해 타이베이 센터는 보통 일에 바쁜 부모 동수들이 자녀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4일 단체명상 전 특별한 ‘부녀자와 어린이의 날’ 경축 행사를 가졌다. 아이가 있는 동수들은 ‘좀더 높게’, ‘피안을 그리며’, ‘솔로몬 왕의 보물’, ‘범희 충만’, ‘천국의 집’, ‘마니주 넣기’ 등 재미있고 멋진 게임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부모들이 기획한 이 놀이들에는 오락 중심

일변도인 여타 행사

와는 달리 영적인 의미가 가득 들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스승님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축복

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부모들의 희망 또한 담겨 있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사방에선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가 물결쳤는데, 어린 동수들은 큰 즐거움과 함께 영적인 수확까지 한아름 얻음으로써 마치 천국에 있는 듯했다!



## 황금시대 어머니날을 경축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시후] 매년 카네이션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 퍼질

때면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깊고 부드러운 사랑을 기린다. 포모사

동수들은 2004년 5월 9일 시후 센터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황금



시대 들어 첫 번째 맞는 어머니날을 경축했다.

그날 제일 먼저 열린 '시후 그리기' 그림 대회에서는 많은 동수들이 참가해 스승님 어머니께서 관음 가족 아이들을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집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려 냈다. 점심 식사 후 본 경축 행사가 숲 속 명상홀에서 열렸다. 관음 가족을 고생스레 키워 내신 스승님의 수년간에 걸친 노고가 비디오편집돼 상영된 데 이어 S.M. 천의 봄·여름 컬렉션 패션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노래 공연, 스승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각색한 단막극이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 합창단이 포모사 동수들을 대표해 스승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음악 카드'를 선사했다!

미아오리 현 '평화의 집' 소속 60여 명의 심신 장애 어린이들과 10여 명의 선생님도 이 행사에 초대받아 귀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오전 청하이 무상사 대외 교류 팀은 센터 정문에서부터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열렬히 환영했다. 동수들과 어린이들은 따뜻한 교류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

하고 서로 진짜 가족처럼 느꼈다. 6년에서 11년 정도 특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평화의 집 책임자인 린진메이 여사는 동수들이 세심하게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감사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수들은 '평화의 집'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시후 센터의 무지개 정원을 둘러보았다.



시후 센터 입구에 전시된 200여 장의 그림들.



미아오리 현 '평화의 집' 어린이들이 열정적인 춤 공연을 마치고 관중들에게 감사를 전하다.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날이 수없이 지나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장애 어린이 단체를 위해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에는 이처럼 사심 없는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의 집 어린이들은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열정적인 춤을 선보여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집 대표가 어린이들을 대신해 청중들에게 감사와 축

복의 말을 전했다.

또한 따뜻한 5월의 햇살 속에서 시후 센터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 200여 장의 사생화가 동수들과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어서 손님들은 채식 케이크를 함께 즐긴 후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어머니날 '시후 그리기' 그림 대회의 작품들을 보시려면 다음 관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2004MotherDay/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2004MotherDay/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2004MotherDay/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2004MotherDay/index.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motherday/2004/index.htm> (미국)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이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 어머니께.

저희는 '집'도 그리지만

그보다 스승님이 더 그리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스승님 어머니를 뵈 수 있다면

유사이래 신이 주신 가장 관대한 은총이 되리라 믿습니다!

스승님의 자녀가 되어 지구가 진화하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다니,  
어쩌면 이렇게도 영광스러울까요!

전 인류를 위해 베푸신 당신의 노고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그 어떤 말로도 저희 마음속의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신 몸을 잘 돌보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스승님의 가장 든든한 손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녀가 되어

스승님과 함께 아름답고 장엄한 황금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생신과 어머니날을 축하드리며 영원한 행복이 함께하시길!

영원토록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장 충실한 포모사 아이들 드림.





스승님께 드리는 어머니날 및 생신 축하 카드



Happy Birthday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날을 맞아

저희가 얼마나 스승님 어머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어머니날, 스승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로운 선물로 놀라게 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요!

스승님의 모든 것과 모든 공헌에

저희가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언제나 가장 소박한 법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자면,

“저희를 이렇게 잘 돌봐 주시고

저희 삶의 일부가 되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스승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독일 뮌헨 센터 제자들 올림...

To Master  
& All  
Mothers





# 신의 가장 영광된 방식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문 중국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스승님, 안녕하세요! 천만 이상의 중국 제자들이 스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체 보존하시고 늘 어디서나 기쁘고 행복하세요! 스승님의 영원한 기쁨과 안녕은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저희를 황금시대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갈망하는 영혼들을 영원히 해탈한 성인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세상의 수많은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우리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영성이 고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점,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진보시키기 위해 베푸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은 자비와 용기로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배움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깨닫고 났을 때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아울러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 이 시대에 스승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란 것을 저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당신의 모범을 따르며 우리 내면의 인도를 따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수행 정진할 것을 일깨우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신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함께하시길…!

스승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중국 본토 제자들 올림.





## 어머니 말썽이 최고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신혼 첫날밤, 신부가 예쁜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도록 신랑은 침실 창문 옆에 붙어서 달과 별만 바라보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신부가 말했죠. “자기, 왜 그래요? 어서 이리 와요!”

하지만 신랑은 말했어요. “안 돼!” 그래서 신부가 물었죠. “아니 왜요? 오늘 밤은 우리 첫날밤이잖아요!” 신랑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은 내 평생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난 일분일초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 사장이라서 좋은 점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어떤 여자가 한 광고 회사에 갓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은 가장 멋진 차림으로 근무해야 했는데, 심지어는 입을 옷조차 회사를 위한 광고가 됐어요. 복장 규율을 담당하게 된 그녀는 매우 열의에 차서 열성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3층으로 일하러 가는 길에 한 남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험령한 청바지와 운동 셔츠 차림인 것을 보고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당신 옷차림이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 회사 사장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1/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1/jk1.htm> (미국)



## 칭하이 데이에 태어난 우리 아기

리잉칭 사저/ 포모사 난토우 (원문 중국어)

1997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국제 선사 당시 참석한 동수들 중에는 임신 중이던 한국 사저가 있었다. 그녀는 절묘하게도 10월 25일 칭하이 데이에 맞춰 아기를 낳았다. 당시 그녀처럼 임신 중이었던 나는 그 아기의 행운이 너무 부러웠다. 호기심 어린 많은 동수들이 나에게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의사의 말에 따르면 3월 6일이 예정일이었지만 부러움과 나 자신의 기대 때문에 나는 영결결에 1998년 2월 22일 칭하이 데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

버렸다. 결과는? 물론 우리 아기는 칭하이 데이에 태어나진 않았다.

몇 년이 흘러 우리 아기는 올해만 여섯 살이 되어 반 입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2월 센터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딸을 데리고 시후 센터 입문식에 가 보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절묘한 스승님의 안배에 감동한 나머지 오랫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입문일이 바로 2월 22일 칭하이 데이였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입문일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하셨다. 언

제 입문을 하든 신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예정된 가장 좋은 안배이건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뇌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안배하려 한다. 스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일에 너무 바빠서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항상 내면을 향해 있고 전심으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스승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완벽한 안배 속에 치러진 입문식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남편과 나는 2003년 5월 방편법을 전수받은 후 입문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스승님 꿈을 자주 꾸었는데, 스승님은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시며 나의 신심을 다져 주곤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초조해진 우리는 때론 자기도 모르게 스승님께 묻기도 했다. “스승님, 저희를 입문시켜 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아직 아무 소식도 없나요?”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좀더 반성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스승님께서 가장 좋은 안배로 가장 알맞은 때에 입문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염마를 찾지 못하는 미아가 된 것처럼 스승님의 법상 앞에서 흐느껴 울곤 했다.

그러다 올해 3월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사형이 “여러분은 이제 입문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알려 주는 꿈을 꾸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이 놀라운 꿈을 나만큼이나 입문을 고대하는 남편에게 얘기해 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일하러 나가고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남편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가까운 나라 센터에서 3월 16일 오전에 입문식이 있다는 연락이





왔어! 얼른 사진 찍고 여행사에 가서 수속을 밟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사진을 찍은 후 남편을 만나러 달려갔다. 남편은 기쁨에 취해 이렇게 말했다. “신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해! 회사에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입문식이 열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있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나를 추천했어. 그것도 내가 꼭 가야 한다면서 말이야. 상황이 긴박해서 여행사에 비자를 내달라고 부탁했더니 비행기 표도 그 도시로 가는 거야. 회의를 마치면 16일 입문식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모든 안배가 완벽해! 나의 아둔한 머리로는 한참이 지나서야 상황이 파악되더군. 입문식 소식을 통지받고 곧바로 그 도시 비자가 도착했거든.” 나도 얼마 안 있어 여행을 통해 비자와 비행기표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

입문식 날 남편과 나는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관음사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비디오에 나오는 동수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깨달은 스승을 찾은 기쁨과 스승님을 뵈고 싶은 그리움, 또 중생의 업을 짊어지시는 스승님에 대한 가

슴 아픔과 관음사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 등 오만 가지 생각이 한데 뒤섞인 가운데 말이다.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마침내 입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3월 16일은 우리가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스승님이 우리를 위해 윤회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날이 되었다.

## 스승님의 축복으로 헤라클레스가 된 약골

천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스승님께 입문한 뒤 나의 삶은 날마다 경이로 가득 찼다. 다음 이야기도 그 중 하나이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농구를 좋아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20년 가량을 뛰고 달리다 보니 다리가 약해져 부득이하게 취미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요 2년 새 수행이 진보하면서부터는 식사량도 차츰 줄어들었지만 신체는 오히려 더욱 건강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 농구 구장에서 농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키가 크고 역센 흑인과 백인 친

구들과 시합을 벌이기도 했다.

입문한 지 6년이 되는 주에 이 친구들과 만나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나는 과거 많은 스승들의 깨달음이 6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스승님께서 깜짝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그날 정오에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가졌다. 경기 도중 나는 노련하게 볼을 가로챈 후 우리 팀의 2m 장신 센터포드(골대 근처에서 볼을 잡아 슈트를 하는 선수)가 백보드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코

트 반대편 끝에서 온 힘을 다해 그에게 패스하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었던 나는 이전까지만 해도 코트 끝에서 반대편 끝으로 패스한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 느림한 체육 선생님이 코트 끝에서 골을 넣어 득점을 기록했던 가슴 벅찬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또 건장한 학교 친구들과 골 넣기 시합을 할 때마다 나는 한번도 이겨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순간 나는 ‘경기장을 가로질러 센터포드에게 공을 보낼 수만 있다면 내 힘이 최대한 발휘되는 셈인데.’ 하는 생



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내 회의감이 들었다. ‘최근 점심도 거르고 다른 식사 때도 적게 먹었는데, 어떻게 그럴 힘이 있겠어?’ 어쨌든 나는 최대한 몸을 뺀어 공을 던진 후 어디에 떨어지는지 지켜보았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공이 골대와 백보드를 넘어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운동장을 둘러싼 철망을 치고 떨어진 것이다.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

안이 병병한 채 경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놀라서 두 손을 들며 할 말을 잃었다. 심지어 건장한 백인 친구는 경기를 계속하던 중 나의 근육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사실 나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겨우 면한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한 흥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관세음보살과 손오공은 인간계의 음식을 먹

지 않고도 살았다고 한다. 손오공의 금 여의봉은 무게가 10,200kg 이나 되었고 관세음보살이 가볍게 들고 있는 물병에는 바닷물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 나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거인이 되는 기분을 조금 맛본 것 같았다!



## ★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13개 국어 자막>

600 비폭력의 진정한 의미

1997. 11. 22./23. 인도 푸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전통 인도 철학인 아힘사(비폭력)에는 육체, 정신, 영성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 DVD에서 스승님은 각 단계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가장 큰 폭력은 영적인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만일 좋고 나쁨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면에 완전한 신의 성품이 두루 존재하고 있다면, 왜 수행자들은 긍정적인 힘만을 계발시켜야 하나? ‘인격 숭배’란 무엇이며 수행 진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수행 분위기’란 무엇이고 왜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그 등급에 빠져 있는가?

<중국어+영어 자막>

685 일에 집중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다

2000. 1. 1. 태국 방콕 국제 선육

**내용 요약:** 명상 중에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신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수행자는 ‘인연에 따른 세상사를 처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삶과 직면해야 하는가? 사람의 정업은 바꿀 수 있는가? 스승님은 숙명론자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다. 일을 하다 실패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신의 뜻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스스로 마음이 좁고 이기적이며 매사에 이해 타산을 따진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스승님이 서기 2000년을 맞아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새해 선물은?





## 만사가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7. 5. 9.-12.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82

질문: 입문을 한 후엔 우리의 인과가 전보다 빨리 바뀐니까?

스승님: 그것은 당신 하기에 달렸습니다. 자기 인과가 빨리 바뀌길 바라는지에 달렸지요. 당신이 인과가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면 빨리 바뀔 것이고, 천천히 바뀌기를 바란다면 천천히 바뀔 겁니다.

질문: 인과가 빨리 바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책임이 빨리 끝난다는 걸 뜻합니까?

스승님: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 인과가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말뜻은, 때로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일을 빨리 끝내고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편이 더 낫습니다. 인과가 너무 빨리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시간도 없고, 살아가고 명상할 에너지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순리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과가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그들은 빨리 진보하고 업장도 빨리 소멸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충고하겠습니다. 그냥 명상하면서 만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과가 빨리 바뀌길 바란다면 한꺼번에 모든 지옥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대중을 위해 일하거나 스승을 위해 일하면 업장이 자동적으로 빨리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무아의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해야지 보상을 바라며 해서는 안 됩니다. 업장을 빨리 소멸시키길 바라거나 빨리 진보하길 바라는 것도 일종의 거래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다면 그래요 됩니다. 그건 단지 두뇌가 말하는 것일 뿐이지요. 영혼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스승 역시 우리에게 이로운 안배를 하고요.



## 어떻게 에고를 줄일 것인가

청하이 무상사/ 1997. 12. 25.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10

질문: 어떻게 수행해야 제 에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스승님: 계속 명상하십시오.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을 타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절제해!”라고 말이지요. 항상 에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우리의 욕망이나 정욕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를 개선하고 조절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질문: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미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스승님: 이해합니다. 그럼 다음 번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 알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요. 자신을 용서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게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정화된 습관이 되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용납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신의 유능한 도구가 되라

청하이 무상사/ 1997. 5. 9.-12.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82

질문: 우리가 부정적인 힘과 접촉했을 때, 그냥 존중해 주고 무시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의사로서 때





로는 침을 놓습니다. 전에는 업장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누군가 제가 그 업장에 '감염'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스승님: 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나 눈이 마주 치거나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거나 등등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업장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을 놓는 의사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당신은 환자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당신 일이니까요. 업장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당신이 죽게 되더라도 해야 합니다. 업장에 대해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불을 외우고, 환자를 '찌르십시오.' (대중 웃음과 박수)

업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상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니 그 점을 잊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의 힘이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치료하고 나면 그걸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업장은 더 커지겠지요. 업장은 말썽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예고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업장이란 없습니다.

## 긍정과 부정을 초월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7. 5. 9.-12.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82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지난번 미국 강연에서 스승님께서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의 균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힘은 긍정적인 힘 쪽에 모여 균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행이 진보할 때면 업장도 더 많이 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힘이 더 많이 오나요?

스승님: 그저 중도를 걸으라고 말하고 싶군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우린 더 이상 그것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는 선과 악의 투쟁, 긍정과 부정의 싸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둘 사이의 전쟁 속에 있다면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되어야 합니다. 스위스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누가 누구랑 싸우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국력이 강해서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겁주어 적을 쫓아냅니다. 공격받는다고 해도 자국을 방어할 충분한 힘이 있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의 힘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과 맞서거나 거기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스위스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그저 중립을 유지합니다. 가령 공산 국가가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해도 문제없고, 소위 민주 국가가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들이 스위스와 싸우지 않는 한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자신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지만, 고기를 먹거나 술을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걷는 길에 가까이 다가오면 친구가 되고, 그들이 이 길을 따르고자 원하면 그들에게 이 좋은 길을 보여 주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승의 힘으로 자신을 무장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속해서 진보하지요. (대중 박수)



## 신을 찾을 때 황금시대가 온다

청하이 무상사/ 1997. 8. 27. 영국 런던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95

질문: 이번 선에서 나온 주제 중의 하나가 '황금시대'라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음악과 노래를 만들고 있고, 영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노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이미 많은 부문에서 황금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신에게로 돌아가고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고 채식을 하고 성서나 불경 혹은 다른 경전들에 나오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살생의 업장을 줄인다면 황금시대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선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습니다. 그것이 황금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을 발견하고 인류가 하나라는 동포애를 발견할 때,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황금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수들은 자신이 황금시대에 있다고 느낍니다. 부처가 살아 계실 때 그의 제자들도 황금시대라고 느꼈습니다. 부처는 자신이 열반한 후 5백 년이 지나면 황금시대, 정법 시대가 끝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시대가 바로 그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황금시대는 끝난 셈이지만, 또 다른 정법 시대는 항상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살아 있는 스승과 진정한 가르침이 있고 내면의 황금시대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황금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건 내면에 황금시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 전능한 힘에 의지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관음사자 (원문 중국어)

최근 중국을 방문해 그곳 동수들과 서로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귀중한 공부를 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를 느끼면서 신의 은총을 가득 안고 사랑의 여행을 시작한 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인류의 의식이 또 한 번 고양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선 무한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스승님은 내적, 외적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셨으며, 나는 전능한 힘이 이미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스승님과 중생들 간의 수행에 걸친 깊은 인연이 참으로 신기하다는 것과 우리는 정말 스승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라고 하셨던 스승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따르고 실천하면서 항상 스승님의 전능한 힘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수행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에 와서 보니 이곳 동수들의 수행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다. 이곳 동수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 연락하기도 어려워 입문할 기회를 한번 놓치기라도 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니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기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우리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스승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들의 신심은 정말 감동적이다. 그들의 신실한 갈망과 굳은 믿음 때문에 신은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신다. 그래서 중

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동수들이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곤 한다. 화신 스승님이 입문식을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 주신다든지, 관음사자가 올 것을 미리 안다든지, 혹은 입문식 당일 화신 스승님이 입문식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식의 내면의 축복에 얹힌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에 못다 적을 정도이다.

매번 밖에 나갈 때마다 스승님의 힘은 과거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통해 나를 미리 교육시켜 나를 안팎으로 키우시고 내가 신의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면 예전에 스승님이 시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수시로 실제 상황에서 운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통해 당시 스승님의 고충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을 공부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일깨울 것이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첫 번째 ‘성인의 날’을 맞아 동수들에게 일러 주신 메시지를 시시각각 되새길 것이다. “신을 기억하십시오. 전심을 다해 명상하십시오. 스승의 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매분 매초마다 신께 감사하십시오.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침을 배우고 대중을 위해 무아의 봉사를 하십시오.” 스승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큰 힘이 들어 있다. 이것은 스승님이 모든 동수들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 아닐 수 없다.





## 음류로써 세세생생 누적된 습성을 지워라

청하이 무상사/ 1988. 8. 12.-18. 포모사 이란 선철  
(원문 중국어) MP3-1

### 두뇌는 세세생생 누적된 습관이다

여러분은 항상 두뇌의 조종을 받습니다. 항상 두뇌의 말을 듣고 두뇌가 하라는 대로 즉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세생생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하며 자신의 스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스승이 있는데도 말이죠. 스승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 지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두뇌는 좋고 나쁨을 분별할 줄 모르고 그저 습성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쌀밥을 먹어 왔습니다. 두뇌는 이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매일 쌀밥을 먹었어. 그러니 항상 쌀밥을 먹어야 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밥이 없고 날마다 빵만 먹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매일 빵을 먹어야 하다니, 끔찍하군. 오늘은 쌀밥을 먹어야겠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이 아니라 두뇌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중국인 여행객은 하루 세 끼 다 쌀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빵과 감자만 먹는 건 참을 수 없지요. 미국인도 우리처럼 눈과 귀, 코, 혀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 빵과 감자를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인들에게 매일 쌀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들 역시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두뇌와 습관이 만들어 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뇌란 무엇일까요? 사실 두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녹음하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대로 재생해 내는 녹음기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기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됩니다! 습관에 통제된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지루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니깐요. 이런 습관은 우리 두뇌일 뿐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두뇌, 습관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인이건, 중국인이건, 프랑스인,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건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똑같습니다. 쌀밥을 먹거나 감자를 먹거나 맥주를 마시는 습관을 키우기 전부터 존재해 온 원래의 자신이 진짜 우리입니다. 나중에 습관과 관습을 따라가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쌀밥을 좋아하는 사람,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습관과 풍속의 영향을 받고 생활의 요구나 육체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내면의 스승의 말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관이나 두뇌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말에 귀기울일수록 우리는 그의 조종을 받게 되어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평생이 매우 지루해지고 바위처럼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매일 같은 생활에 생각도 똑같고 습관과 행동도 똑같으며 지혜라곤 손톱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꺼내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을 모두 은행에 두거나 한구석에 곰팡이가 슬도록 쌓아 둔 채 매일 고생스레 돈 벌어가다 버는 즉시 써 버린다면, 그 많은 돈도 우리에게겐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써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자신'을 재빨리 깨닫지 못한다면 습관의 통제를 받아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가 습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의력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일단 유사한 많은 습관들이 한데 뭉치면 형태를 갖춥니다. 예를 들면 이 형상은 쌀밥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 모든 성향이 함께 뭉쳐 하나의 모습을 이루면, 다음에 윤회해서도 거의 같은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아가 새로운 행위까지 보태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는 이번 생애는 다른 곳에 태어났어도 전생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몇 가지 보태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즐겁다가 내일이면 불행하고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나빠지지요. 또 오늘은 아시안처럼 말하고 내일은 서양인처럼 말합니다. 독립적이거나 자주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습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뇌는 습관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애당초 '누구누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힘에서 나와 어떤 도구를 사용해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공부가 자신이라고 여기곤 자신의 위대한 힘을 그 안에 집중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 틀 안에 가둡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힘이 습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습관은 우리의 힘에게 지금 밥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하며 온갖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의 전능한 힘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두뇌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 내면의 음류로써 오랜 습관을 지워라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는 것은 내면의 감로수로 세 세생생 수집한 습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



리는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뇌는 습관으로 가득 찰 것이며 윤회할 때마다 더 많은 습관이 더해지겠지요. 이런 습관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우리 또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내면의 음류라는 감로수만이 이 복잡한 습관을 씻어내고 그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습관도 우리의 전능한 힘을 조종할 수 없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함에 따라 우리는 이 습관이란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문하는 즉시 담배를 끊습니다. 내면의 음류가 담배 피우는 습관을 씻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문득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배를 끊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입문하자마자 담배를 끊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지 수십 년도 더 되는 데, 그런 습관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문할 것도 없이 나를 본 후 집에 돌아가자마자 담배나 술, 고기 등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의 두뇌는 비교적 ‘물렁해서’ 영향이 빨리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단단해서’ 영향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고가 강하고 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세세생생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습관을 쌓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생 동안 담배 피우는 습관이 들어 있어 나를 만났을 때 바로 습관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한두 생에만, 혹은 이번 생에 겨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본 순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습관을 씻어내기가 더 빠릅니다. 옷에 별로 때가 없으면 빨래하기가 더 쉬운 것과 같지요. 물에 살살 빨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안 입은 데다 며칠이나 빨래하지 않았다면 힘들여 비벼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은 세탁하는 데 오래 걸리고 어떤 옷은 짧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더러운 옷을 세탁하려면 반드시 물과 세제를 써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업장을 없애는 데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로수로 씻어내는 거지요. 만약 누군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속임수예요!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내면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거나 내면의 감로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법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 관음법문이야말로 유일한 정법(正法)이다

어떤 법문이든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준다면 모두 관음법문이며 옳은 법문, 정법입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옷을 깨끗이 빨 물을 주기만 한다면 그가 어떤 언어로 말하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어떤 용기를 사용하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다면 바른 것입니다. 금 그릇이라도 그 속에 든 게 기름이라면 옷은 더럽혀지겠지요! 그가 주는 액체가 물처럼 보여도 그게 사실은 맥주나 향수, 우유라면 이 또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어떤 그릇을 사용하든 물을 담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니깐요.

그러므로 어떤 법문이든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관음법문이며 정법입니다. 어떤 선사들은 좀 순수하고 전생에 수행을 한 덕분에 간혹 명상 중에 내면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내면의 소리를 경험했으니 그 순간은 그들도 관음법문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사’들이 꼭 수행을 오래 했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수행한 지 오래됐어도 수행의 경지가 불안정하고 소리도 있다 없다 하며, 어떤 소리





가 좋고 나쁜지 모른 채 제멋대로 듣기도 합니다. 이러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병이 났는데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도 합니다. 약국에는 보약, 비타민, 복용약, 두통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약을 사 먹기도 합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은 여러 가지라는 걸 대개는 알지 못합니다. 배가 아플 때도 아픈 곳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조차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복용 양이라든가 복용 기간, 식후에 먹는지 식전에 먹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명확하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 수행할 수 있지요. 보약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관음을 하지 말고 명상 시간의 1/3만 하라고 하며, 또 어떤 쪽은 듣고 어떤 쪽은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약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보충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울락에도 있고 포모사에도 있으며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부만 훔쳐올 뿐 완전한 법문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로움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도 있지요. 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관음법문만이 경험 많은 의사가 내린 처방전처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노련한 의사는 환자들마다 얼마큼 먹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대를 졸업하지도 않고선 병원을 차려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소위 '스승'이란 사람들이 돈

을 벌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수행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매일 습관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여러 번 빨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동수가 내게 “스승님께선 왜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단식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윤회의 습성을 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리가 끊어져 자유롭게 되니까요. 우리 주인이 오늘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으며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굶어 죽는다고 성불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 뭐가 되는지, 여러분 모두 잘 알지요! (대중 웃으며 대답. “아귀(餓鬼)입니다!”) 맞아요, 아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식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감로수로써 우리의 세속적인 습관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쓰고 먹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채식 음식이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지내야만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많이 먹고 생활이 안락해야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금 자유롭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루 종일 커피나 우유, 찹쌀만을 생각할 텐데, 만약 천국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 세상에 다시 또 내려와야 하는 거지요. 예! 만약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을 갈망한다면 여기 와서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 역경 속에 빛난 영성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영감 어린 작품들

스완 사저/ 영국 (원문 영어)

## 들어가며

덴마크 작가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1805-1875)은 동화 175편, 시 800편, 소설 6편, 자서전 서너 편, 그리고 무수한 여행기와 희곡 등 무수한 작품을 남겼다. 특히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동화는 그의 이름을 전세계에 떨치게 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123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참고 사이트: <http://www.odmus.dk/andersen/eventyr/start.asp?sprog=engelsk>)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글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굉장한 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수많은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



## 생애

안데르센은 덴마크 오텐세의 가난한 구두장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귀족 출신이라고 믿었으며 문학을 좋아했다. 세탁부였던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을 민담의 세계로 안내했다. 유년기 시절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으나 감성이 남달랐던 안데르센은 비정상적인 키와 노래, 춤과 같은 '여성적'인 취미로 인해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

했다. 그는 부모님의 격려에 힘입어 동화를 쓰고 꼭두각시 인형극을 창작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극장에서 연출을 맡기도 했다. 훗날 고향을 떠난 그는 시험에 통과한 뒤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교육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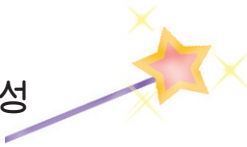
안데르센은 극작가와 소설가로 성공하기 전 가수나 댄서, 배우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우연히 한 친구에게 자신을 시인으로 지칭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다. 안데르센은 이에 대해 "그 생각은 내 몸



과 영혼을 관통해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글과 시를 쓰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데르센은 1831년부터 유럽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해 평생을 정열적인 여행가로 살았으며, 몇몇 여행기 속에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여행한 견문록을 몇 편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어공주」와 「별거뿔은 임금님」, 그리고 안데르센의 자서전적인 작품 「미운 오리새끼」 등의 동화와 이야기들은 주로 1835년부터 1872년 사이에 집필되었다.

## 영적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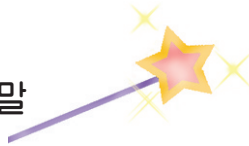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는 한 강연에서 「미운 오리새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신 바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 중 하나인 백조이지만 오리 무리에 섞여 있음으로써 그 겉모습이 별나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행자들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과 개념이 달라 종종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데,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쩌면 우리는 ‘오리 무리에 섞인 백조’일 수 있으니 말이다. 또 어떤 경우엔 세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 무리에서 버림을 당했을 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원래 소속된 백조의 무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회의 배척으로 인해 진정한 고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데르센의 작품에서는 영적인 주제와 심상도 발견된다. 다음 「종소리」(1845)에 나오는 구절은 작가가 어느 정도 깨달음을 경험했음을 보여 준다. “대자연은 거대한 성스런 교회. 그 속의 나무와 떠 있는 구름은

기둥, 꽃과 풀들은 비단 카펫. 천국은 그대로 거대한 지붕을 이룬다. 그 위의 불꽃은 태양이 사라지면 동시에 스러지고 대신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였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등불이 빛나고 그 위로 보이지 않는 성스런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복한 정령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할렐루야와 찬가를 불렀다.”

안데르센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흔적은 「펜과 잉크병」(186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전능한 신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 이올린과 활이 자신의 연주를 뽐낸다면 참 우스꽝스런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시인, 예술가, 실험실의 과학자, 일반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러하다. 우리는 단지 신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오롯이 그 분께 속한다. 우리에게는 우쭐댈 것이 전혀 없다.” 안데르센은 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재차 나타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신에게 모든 영광을.”이란 문장으로 마쳤다.

## 맺음말



동화의 대가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애는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역경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생활의 역경을 일종의 공부로 여기고 그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영성은 이렇게 고달픈 삶을 통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도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히는 영감 어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 이야기들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이다.

안데르센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hca.gilead.org.il/> (원문 영어)

<http://www.sm21.net/jing/anderson/index.html> (원문 중국어)





# 세계보건기구:

## 높은 목표, 눈부신 성과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유엔 산하 특별 기구로 설립되었다. 현재 200여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이 기구는 각종 질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WHO의 사명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헌장에 나와 있듯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건강’이란 ‘육체, 정신, 사회복지가 완벽한 상태’로 정의된다.

### 성과

지난 수십 년 동안 WH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 왔다. 대표적인 첫 번째 성과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여겨지던 천연두를 근절한 것이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천연두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 갔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WHO가 천연두 퇴치 계획을 세운 후 담당 임원들이 전세계를 돌며 천연두 대중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결과, 이 질병은 1977년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WHO는 소아마비와 나병 등의 질병 퇴치를 위해 방향을 전환했고 이 질병들도 현재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 퇴치 외에도 WHO는 전세계적인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계획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또한 각종 건강 연구 조력자들과 공동으로 세계 인류의 건강 상태와 건강에 필요한 여건을 조사하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만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발견됨에 따라 2002

년 5월 세계보건총회의 위임을 받아 ‘식생활, 운동, 건강에 관한 전세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농 현상으로 가속화된 도시화는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변화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잘 알려졌듯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포화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대량으로 포함된 고열량식을 좋아하는데, 새로 형성된 도시 저소득층들에게 있어 이런 식생활의 갑작스런 변화는 좌식(坐式) 생활로의 변화와 함께 심장 질환과 당뇨, 중풍, 암 그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들을 유발 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과다 체중, 운동 부족 등의 치명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계보건총회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은 이런 위험 요인들과 싸워 이길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전염병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키워 준다. WHO에서는 특히 예방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 과일과 야채, 견과류와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보다 많이 섭취할 것.
- \*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
- \* 동물성 유지 대신 불포화 식물성 유지를 사용할 것.
- \* 음식 중 지방과 소금, 설탕의 전체 양을 줄일 것.
- \*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것.
- \* 금연할 것.

이러한 지침들은 꼭 완전 채식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과일과 야채, 견과류와 곡물 그리고 식물성 유지를 섭취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침들은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을 고려한 주장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등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반영돼 있다. 즉 동물에 대한 자비심의 관점에서 채식을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예로 WHO는 1908년에 설립되어 전세계에 회원을 갖고 있는 ‘국제채식연맹’의 가입을 승인해 자료를 얻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4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예방 보건’에 대한 안전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보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확고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HO는 또한 국제적인 식품 제조 회사들과의 교류를 모색해 WHO의 이러한 목적 달성에 협조하라는 책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

인다.

이 밖에 WHO에서는 전세계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휴대 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맺음말

세계보건기구는 성립된 이래 56년 동안 지구상에 기적을 일구어 냈다. 앞서 언급한 천연두의 박멸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WHO는 지난 2백 년간 의료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20년이란 시간 안에 해결해 냈다. 천연두의 예방 백신이 1796년에 이미 개발되긴 했지만 WHO에서 이 병을 퇴치하기로 앞장선 후 1977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님을 통해 감동을 받는 여러 가지 신의 품성들을 현실로 구현해 낸다.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류의 이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보답이나 세인들의 인정을 바라는 바 없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아 온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겸손하고 아낌없는 노력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 틀림없다.



감초벌서

## 삶의 밝은 면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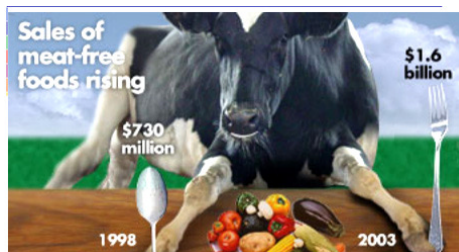
청하이 무상사/ 1997. 1. 26. 프랑스 파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9

신이 우리에게 단점을 주실 때는 장점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삶의 균형을 위해 신이 주신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분명 신은 장점도 주셨을 테니까요. 자신의 단점 때문에 고민하고 침울해하지 말고 장점을 발굴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삶 속에서 신이 주신 밝은 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써 스스로를 고양시키십시오.



# 날로 더해 가는 채식 바람이 세계 평화를 돕는다

황룡 박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고기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육식만 포기하면 여러분 자신과 국가의 건강과 더불어 이 세상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식을 삼가는 것은 이 행성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최근 몇 년 새 동물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 것과 발맞춰 광우병과 심장병 등 육식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현재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채식 상품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육식 섭취를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채식 식품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채식 관련 제품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두유와 베지버거 같은 품목들이 판매되는 대형 식품점과 패스트푸드점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의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민텔 인터내셔널(Mintel International Group Ltd)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미국 내 채식 식품 및 유제품 대체 식품의 소매 매출액은 113% 성장한 16억 달러에 달한다. 이 통계 수치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칭하이 무상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발암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그들이 쇠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왜 발암률이 낮은지 압니까?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건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 자비심에 근거한 채식

채식 식품 판매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 개인적인 동기에 관해서, 미국에 본사를 둔 ‘채식 자원 단체

(Vegetarian Resource Group)’의 데브라 워서맨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슈퍼마켓에선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채식 상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적 채식 식품 고객 대부분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보다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채식 식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또 동물 보호 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촉구한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Vegan-육류뿐 아니라 유제품도 먹지 않음)용 식품이 젊은 층에게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풍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주요 대형 식품 회사라는 점이다. “닭고기와 육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채식 식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 보호 운동을 이해하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동물 복지에 근거한 원인 외에도 위에 언급한 건강적인 측면 또한 채식 식품 소비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한다 해도 그 선택은 결국 동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촉구하는 모임(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대변인인 브루스 프리드리히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밀바탕이야 어





찌 댔든 육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동물에게 이로움을 주니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와 생선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해도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이 고기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완전 채식주의자가 한 명 생기는 셈인 거죠.”

## 건강적 측면에 기인한 채식

1990년대 중반까지는 채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됐으나 고지방식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심장 관련 질환 외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오염된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학 용어로는 소 해면상뇌증)’의 인체 발병 우려가 커짐에 따라 쇠고기 소비량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쇠고기를 닭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등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콩단백, 밀 글루텐 등 고기와 같은 채식 제품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준(準) 채식주의자(매체에서는 방편 채식주의자라고 함)는 채식 시장의 소비를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많은 완전 채식주의자들이 그렇듯이 대다수의 이 방편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통한 건강의 이로움을 증명하는 의학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다. “채식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음식과 질병의 연관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려는 마음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영양학과 수잔 흡스 교수의 말이다.

## 앞으로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오늘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채식 상품들은 자연 건강식품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그렇지만 크라프트(Kraft), 콘 아그라(ConAgra),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딘 푸즈(Dean Foods), 켈로그(Kellogg's)와 같은 기존의 대형 식품 업체들이 채식 시장에 진출해 막강한 제품 개발과 유통, 마케팅을 앞세워 대형 슈퍼마켓의 소매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합세하는 대형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채식 식품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위에 언급한 시장 조사 기관인 민텔사의 전세계 신상품 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식 상품의 소매 총 매출액은 매년 20%에서 40%가량 증가하고 있다. 1996년 미국 내 총 매출액은 310만 달러였는데 2001년에는 12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고, 2006년이 되면 2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채식 자원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성인 인구의 2.5%인 480만 명이 스스로를 채식주의자로 생각하고 성인 인구의 1퍼센트인 170만 명은 유제품과 달걀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한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인구의 5%에서 9%(약 970만에서 1,740만 명)가 약간의 고기와 가금류, 생선을 섭취하는 ‘채식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3,860만에서 4,820만 명(성인 인구의 20~25%)이 채식을 선호해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채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고기 소비를 줄임으로써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는 칭하이 무상사의 충고를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건강을 위한 모든 이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이유에서도 채식을 해야 하며,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채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심 때문이라도 채식을 해야 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채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서방 국가와 미국 국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매년 1,600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웅이 되려면 채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따르지 않고 같은 명상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 맺음말

미국 외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종교와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채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런 채식 바람은 계속 진행 중이다.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자비로운 채식의 시대 또한 확연히 시작되었다. 이에 따

라 황금시대가 더욱 앞당겨지고 있으며, 스승님의 말씀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기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육식만 포기하면 여러분 자신과 국가의 건강과 더불어 이 세상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식을 삼가는 것은 이 행성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시

## 당신께 입문하며

- 위대한 칭하이 무상사님께

예비 입문자 위안리/ 홍콩 (원문 중국어)

‘입문’이란 말을 처음 듣던 날  
마음이 한없이 갑갑해졌습니다.  
겨우 두 글자밖에 안 되건만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맺어질 것인가?  
어떤 낙인이 찍힐 것인가?  
이미 시작된 사념은  
밤낮으로 멈추질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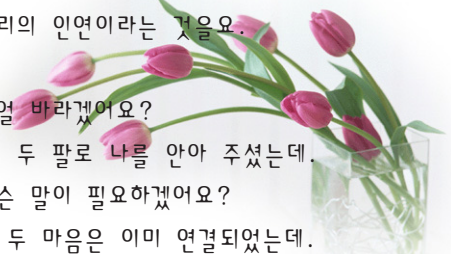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은  
내 인생에 번뇌란 없다고 알려 줍니다.  
내 머리 위를 떠다니는 구름은  
우주적인 사랑을 보여 줍니다.  
눈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강렬한 빛은  
내게 원래의 고향으로 어서 돌아가라고 부릅니다.  
꿈속에서 당신과 춤을 춘 게 그 얼마던가요?  
우리의 눈길이 마주했을 때 소리 없이 알아차렸건만  
어째서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람, 구름, 빛, 모든 것을 지니신  
당신을 찾아 나, 헤맸니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인님에게 배워 나 자신을 정화합니다.  
이제 겨우 한 발자국 땔 뿐인데  
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바람은 당신을 거쳐 왔고  
그 구름은 당신 위를 지나왔으며  
그 빛은 당신의 일부이고  
그 꿈은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무얼 바라겠어요?  
당신은 이미 두 팔로 나를 안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당신과 나, 두 마음은 이미 연결되었는데.





# 동식물의 집착에서 음식의 자장까지

청하이 무상사/ 1990. 1. 10. 포모사 가오슝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109

무슨 종교를 믿든지 우리 모두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동물들은 스스로 움직일 줄 아니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려는 의지가 있으며 두뇌를 통해 움직임을 지시할 수 있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른 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인연 관계를 형성하고 수많은 경험을 수집하면서 지능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착을 낳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이 자신의 지성과 수집한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삶에 연연해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고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싶어하며 많이 움직이고 다른 중생과 더 많은 인연을 맺고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며, 증오와 선량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자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지요. 마치 접착제를 밟으면 발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래를 밟을 때는 괜찮죠. 접착성이 없으니까요. 만물엔 각기 다른 성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발을 내딛는다면 증오로 가득 찬 그들의 자장이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식물은 바람이 불 때를 제외하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이 적고 지능 또한 떨어집니다. 의식이 낮으면 집착도 적습니다. 식물에게는 죽고 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경험과 집

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와 대조적으로 동물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가 여자 친구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다음날 더 멀리 돌아다니다가 다른 여자 친구를 찾아내면 ‘와, 애가 저번 애보다 더 예쁘네!’ 하고 생각하겠죠. (스승님과 대중 웃음) 집착은 이런 경험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에 연연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동물들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경험이 너무 적어서 집착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그들의 자장은 우리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과 식물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마찬가지로 껌과 모래, 자갈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래나 자갈은 그 위를 걸어도 달라붙지 않지만 껌은 달라붙습니다. 각 사물에는 서로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요! (대중 박수) 잘 살펴보면 이런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하이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거나 불보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단순하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관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지요.

우주의 모든 것들은 각기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부담이 적고 우리가 수행하기 쉽고 더 빨리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거운 자장에 묶이거나 끌려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 아힘사와 채식

## 영생을 얻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율

청하이 무상사/ 1991. 5. 14. 미국 콜로라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70a

만약 여러분이 번 돈이 피를 통해 번 것이라면 여러분의 양심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속에 담긴 숨은 비밀을 알려 주려는 것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생과 관련된 직업은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려서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가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우리 생명의 일부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낸 구멍, 우리가 지은 그 일부분의 생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빼앗았던 그 역할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지요. 가령 그 동물이 언제까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동참한다면 어느 정도 그 역할의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멍을 메우거나 빠진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연극에는 여러 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한 여배우를 때렸든가 감독이 한 명을 해고했다면, 감독은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

파하지요. 해고된 배우는 직장을 잃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될 것이고 연극 또한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감독에게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배우가 해고되도록 감독을 도왔거나 여배우를 때렸다면 여러분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든가 법정에 서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겠지요. 심지어는 그 배우의 역할을 대신 맡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계란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주겠습니다. 계란은 윤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 계란은 부정적인 힘을 끌어들이니다. 이를 잘 아는 주술사들은 마장에 걸린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영혼을 끄집어낼 때면 계란을 사용해 그 존재를 유인합니다. 그들은 계란을 깨뜨려 그 영혼이 몸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육체가 없는 죽은 영혼은 계란을 보면 자신이 태(胎)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술사는 깨진 계란을 들어서 던져 버립니다. 이 밖에도 계란은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렇게 알려 준 내용은 영생을 얻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율입니다. 강제성을 띠거나 어떤 권위를 갖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밀스런 공식일 뿐이지요.



## 깨달아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청하이 무상사/ 1995. 7. 10.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87

옛날에 아주 부지런한 석공(石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돌을 쪼개 뭔가를 만들거나 갖다 팔았습니다. 미아오리의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절대 쉬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아주 크고 힘 좋은 망치로 바위를 깨면서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돌 조각들은 도로나 명상홀, 자갈들이 필요한 곳엔 어디에나 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석공 덕분이었죠.

석공 일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힘이 셉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돈을 더 벌려고 때로는 점심 시간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모두 그의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무 걱정도 없고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힘'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나이는 자기 운명에 만족하지 않았고, 항상 고귀한 삶을 살고 싶어했습니다. 더 부유

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었지요.

어느 날 그는 돌을 쪼고 있었습니다. 감로강 옆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큰 구름 같은 먼지가 그가 있는 곳으로 불어 닥쳤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크고 화려한 사두마차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건장하고 뚱뚱하며 위엄 있는 고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었고 많은 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관리는 아주 멋지고 장엄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신기한 변신

이 광경을 본 석공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지면서 자신이 아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선 갑자기 ‘왕의 대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겨났지요. 그러자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왕” 하고 큰 천둥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산신이 석공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석공은 바로 고관으로 변해 수상이 되었고, 이전에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돈과 큰 궁전, 경호원도 생겼고, 땅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으며, 어딜 가든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흠뻑 물을 뿌려도 그들은 기뻐하며 감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공은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는 또 매일 사방을 순회해야 했고 왕을 도와 국정을 돌보고, 돌아와서는 왕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궁정에 들어갈 때마다 무릎 꿇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해야 했지요. 관복도 입어야 했는데, 이 옷은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값가지 보석으로 장식돼 아주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위에 걸맞은 금은보석으로 장식된 관모까지 써야 했고요.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할 때마다 등이 아팠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허리가 툭 부러졌을 거예요. 이 때문에 그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감히 관복을 벗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때문에 그 상황을 겨우 참아 내고 있던 어느 날, 왕은 국사를 처리하도록 그를 아주 먼 곳에 파견했습니다. 중간에 그는 넓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야 했지만 지위 때문에 관복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상답게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그는 더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자는 평소보다 세 배나 무거워졌고, 관복 또한 땀에 폭 젖어서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세상에… 수상이 되는 게 이렇게 끔찍한 거였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수상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사막에서 죽겠구나! 왕이 되는 게 낫겠어. 차라리 왕이었다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왕이었다면 이렇게 사막을 건널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 내가 하

고 싶은 대로 하고 부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와! 왕이 되면 정말 멋지겠다! 왕이 되고 싶어. 다른 건 필요 없고 왕이 되고 싶어. 난 왕이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



## 영예로운 왕이 되다

그때 갑자기 또 한 번 “왕!”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석공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엄청난 부와 많은 아름다운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기가 지나자 여러 장관들과 주지사, 도지사들이 날마다 올리는 많은 보고서 때문에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각 부처 장관들과 밤늦게까지 국정 문제를 논의해야 했지요. 그래서 그는 밤에 편히 자지도 못하고 자기 일과 국가 일을 걱정했으며, 많은 시급한 일들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그는 편히 자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아름다운 부인들과 즐겁게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부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괴로울 때는 어떤 것도 재미가 없는 법이잖아요. 그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봐도 먹을 마음이 안 생겼고, 늘 원하던 부인들과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고, 의무와 근심 걱정, 그리고 신하, 적국, 친구 등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파묻혔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유일한 존재인 왕에게 온갖 내면, 외면의 문제들을 갖고 찾아왔으니까요. 이로 인해 그는 왕이 되는 건 복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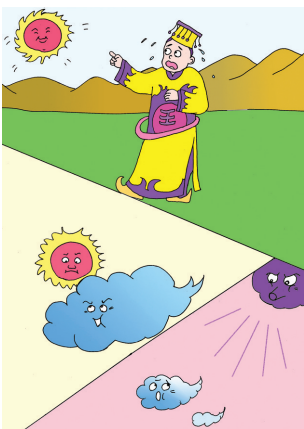


## 태양도 어두운 때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해 도망가 숨어야 할 처지가 되었지요. 도망가는 도중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해진 그는 열이 났습니다. 적이 바짝 쫓아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왕이 되는 건 정말 끔찍해! 처음에 왕이 되길 바랐던 건 실수였어!’ 그러다 하늘을 올라다보니 태양이 아주 자유롭고 높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태양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다 밝고 아름답게 빛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 하느님. 태양이 되는 게 낫겠어요. 전 태양이 되고 싶어요. 왕은 싫어요. 태양이 되고 싶어요!’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사랑과 따사로움으로 만물을 두루 비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스스로 매우 당당하고 즐겁고 고귀하게 느껴졌지요. 자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는 모든 중생을 내려다보며 대단한 기쁨과 고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너무 어두워서 지혜안을 열고 봤더니 세상에, 앞에서 큰 먹구름이 감히 자신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에서 버둥거렸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처에 깔린 암흑이 그의 지혜안까지 가려 버렸으니까요! (대중 웃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구름이 왜야겠어! 반드시 구름이 될 거야. 구름이 태양보다 대단하



니까. 태양은 별로야!”



## 구름과 산의 괴로움

그때 또 “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겠죠! (대중 웃음) 결코 만족이라곤 모르는 이 남자는 다시 한 번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구름으로 변한 거죠. 그는 한동안 아주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 주고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빗물로 꽃들을 키우고 대지를 운택하게 가렸습니다. 만민에게 행복을 주면서 그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얼마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는 실오라기처럼 점점 더 작아지고 가늘어진 끝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흩어진 힘을 끌어 모아 다시 커지면 되니까.” 하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그를 산꼭대기로 날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산이 그를 꼭 붙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말이에요. 산에 붙잡혀 꼭대기에 걸린 그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모든 건 왔다가 가지만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군. 산은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을 거야! 언제나 강하지. 아! 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산이 되어야겠어. 산이 최고니까!” 그리고 “광”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가 뭐가 됐을까요? (대중 대답: “산이요.”) 맞아요,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산이 되었으니까요.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태양이 나와도 그 어떤 것도 산을 성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스승님이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뻗으며 힘을 잔뜩 준 모습을 하심) 이렇게요. (대중 웃음) 그는 산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면서 스스로가 아주 위대하다고 느꼈지요. 매일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이 매우 위대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칼이나 정 같은 것으로 자신의 발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매향사, 한 석공이 자기 발 밑에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내 발을 찢러? 아프단 말이야!” 그러나 그 석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망치와 날카로운 정으로 돌을 하나씩 깨 나갔습니다. 게다가 노래하고 휘파람까지 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욱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 나는 석공이 될 테야!” (대중 웃음)



###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평상심을 얻는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깨닫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다시 평범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좋으며 평상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평상심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른바 평상적인 생활 방식은 평상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상심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망이나 바람, 거부도 없으며,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생활 방식은 결코 평상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깨달음을 깨닫지 않음으로, 깨달음을 큰 깨달음으로, 그리고 큰 깨달음을 깨닫지 않은 마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깨닫고 나면 아무 말도 하고 싶

지 않아집니다. 별로 깨닫지 못한 초기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요. 우리는 ‘부처’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해탈, 윤회, 업, 환생 등등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파의 거창한 용어를 알며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말은 더 많아지지 만 우리의 말엔 핵심이 있게 됩니다. 전에 주절대긴 했어도 의미를 몰랐던 말들의 의미를 이제는 더욱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전보다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의 단계가 더욱 의미 깊고 정직하지요. 우리 자신의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니깐요. 그 말하는 단계를 지나면 침묵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왜 내가 말을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스승님 웃음) 그건 여러분이 나에게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지요.

말을 안 한다는 게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요하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모든 활동을 멈춘다고 해서 그가 평온하다는 걸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하긴 해도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대답하거나 평범한 사람처럼 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말을 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에게는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말하지도 않고 일부러 깊은 인상을 주고자 말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평상시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석공의 이야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정말 우리와 똑같지요!





## 태국 소식

# 화재 이재민들의 가슴이 스승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다

방콕 뉴스그룹

2004년 4월 28일, 방콕 센터에서 불과 10킬로미터 떨어진 수안 플루 파타나 지역에서 근래 수년 만에 최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700여 가구가 파괴되고 3천여 명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었다. 거주민 대부분은 태국 북동부 출신의 노동자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방콕 동수들은 화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검토한 후 즉시 주방 팀과 구호 팀을 조직해 이재민들을 위해 채식 음식을 준비, 전달하는 한편 또 다른 한 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른 단체의 구조 작업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구호 팀은 방콕 라자만가라 과학 대학에 마련된 임시 보호소에 도착한 후 이재민들에게 신선한 채식 요리를 바빠 나눠 주었다. 이재민

들은 금방 만든 음식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으며, 음식 선정에 까다로운 많은 이슬람교인들도 우리 음식에 감사히 여겼다. 동수들의 신실한 노력들에 감명을 받은 모든 이재민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큰 위로를 받았으며, 스승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지면서 그들의 피곤함도 덜어지는 듯했다.

한 여성은 재난 상황에 대한 동수들의 라디오 방송을 관심 있게 듣고는 동수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하겠다고 구조 대원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또 우리는 음식을 나눠 주는 동안 스승님의 불찬 테이블을 틀어 두었는데, 우리 부스 근처에서 음식을 나눠 주고 있던 한 남자는 스승님의 목소리에 끌려 우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 있는 음성은 들어 본 적이 없

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에 끌려서 오게 됐어요.” 이에 한 동수가 그에게 불찬 테이블을 하나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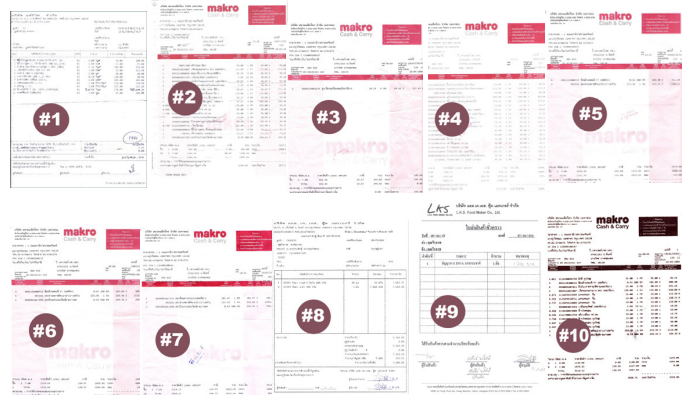
태국 동수들에게 이번 구호 활동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많은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다.



## 태국 방콕 수안 플루 파타나 지역 이재민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태국 바트)

항목	지출 금액	영수증 번호
용구	6,233.00	#5, 6, 7
뜨거운 음료	5,164.00	#8, 9
쌀	1,600.00	없음
부식	10,101.25	#1, 2, 3, 4, 10
두유	2,100.00	없음
문구	2,000.00	없음
총계	27,198.25	







## 홍콩 소식

# 노숙자 돕기를 통해 무아의 공부를 하다

홍콩 뉴스그룹

홍콩 동수들은 2004년 칭하이 데이와 성묘일에 구 시가지에 있는 노숙자들을 방문해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자신들 또한 무아의 봉사로 인한 기쁨을 경험했다.

2월 22일 칭하이 데이, 우리는 먼저 구룡 지역의 요마디 센터를 방문했다. 이 수용소는 '홍콩 구제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센터 세 곳 중 하나이다. 사형사저들은 이 센터의 거주자들에게 옷과 일용품, 샌드위치 등을 나누어 주는 큰 기쁨을 누렸다. 이 사랑의 활동 동안 센터 관리자는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나눠 주는 일을 앞장서서 도와주기도 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반얀 나무 공원이었다. 동수들은 공원과 가까운 도로에서 스무 명도 더 되는 노숙자들을 발견하곤 서둘러 다가가 선물을 나눠 주고 위로와 관심을 전했다.

이어서 4월 4일 성묘일에는 '홍콩 구제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인 '완차이 노숙자 센터'를 방문했다. 정부 시설에서 많은 노숙자

들을 수용해 이 지역의 노숙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동수들이 옷과 일용품, 채식 음식을 예쁘게 포장한 수십 개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센터에 도착하니,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곳 관리자와 많은 거주자들이 우리를 따뜻이 맞아 주었다. 그들에게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수행 단체에서 왔다고 얘기하자 관리자는 "여러분의 스승님은 아주 유명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친척도 스승님의 강연에 참석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거주자들은 선물 보따리와 함께 받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가지고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 중 몽골 출신의 거주자는 영어로 된 견본책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활동을 마친 후 열흘도 안



돼 홍콩 사회복지부는 이달에 노숙자의 고용 및 안정된 숙소 보장을 위해 3개 종합 서비스 팀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홍콩 내 5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동수들에게 있어 이는 스승님의 가피력이 발휘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 포모사 소식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상세 내역  
표 1과 표 2 합계: NT\$322,625 (미화 약 9,703달러)

표 1: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날 짜	활 동 내 역	금 액	부 록
핑둥	2004. 1. 4.	핑둥 현 완루안 향 신츠 마을 방문, 겨울철 온정 나누기 일환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음력설 선물 전달	10,450	A
미아오리	2004. 1. 11.	시후 항공소의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1. 28.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1. 29.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2. 25.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2.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지룽	2004. 2. 28.	지룽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와이무산 아오디 어항 해변 청소 작업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둥	2004. 2. 29.	타이둥 다렌 향 투반의 산간 벽지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한방·양방 무료 검진 및 이발 서비스	11,175	B
타이난	2004. 3. 24.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3. 25.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지룽	2004. 4. 17.	지룽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와이무산 아오디 어항 해변 청소 작업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4. 21.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해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4. 29.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해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동수 자원 봉사)	0	
총액			NT\$21,625	





포모사 타이난: 매월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성 고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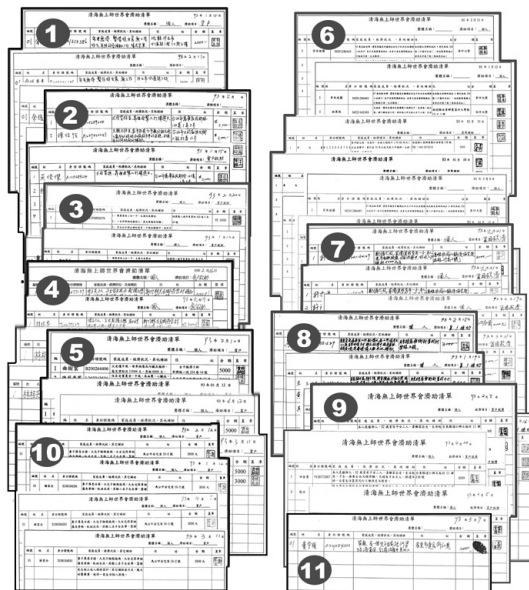


포모사 핑둥: 엄동설한에 온정을 나누다.

표 2: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빈곤 가정 돕기 활동

(단위: 대만 달러 NT)

	2004년 1월		2004년 2월		2004년 3월		2004년 4월		
지 역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부 록
지룽	1	2,000	1	2,000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4	10,000	4	10,000	4	10,000	4	10,000	2
타오위안	1	2,000	1	2,000	1	3,000	—	—	3
신주	2	6,000	2	3,000	—	—	1	3,000	4
미아오리	—	—	—	—	1	2,000	—	—	11
타이중	2	8,000	2	8,000	2	8,000	2	8,000	5
난토우	7	26,000	7	26,000	7	26,000	7	26,000	6
가오슝	2	7,000	2	7,000	2	7,000	1	4,000	7
핑둥	3	9,000	3	3,000	3	9,000	2	6,000	8
타이둥	2	8,000	2	8,000	2	8,000	2	8,000	9
핑후	1	3,000	1	3,000	1	3,000	1	3,000	10
월별 소계	25	\$81,000	25	\$72,000	24	\$78,000	21	\$70,000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연합 학구(學區)  
페어 에비뉴 초등학교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의 마지 에반스 여사께.

페어 에비뉴 교장으로서 저희 학교와 학구 주민들을 대표해 귀하  
께서 미화 천 달러를 기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존 발부에나 학생이 L.A. 음악 주간의  
표창장을 받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와  
같은 걸출한 학생이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학생은  
귀 단체가 상징하는 이념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표창식 안내장에 비키 에반스 여사가 쓰신 중국 속담이 아주 마  
음에 듭니다. “1년을 위해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선 나무를 심  
어라. 100년을 위해선라면 사람을 심어라.” 학교 관리자로서 저는 저희  
가 열심히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존 발부에나 학생의 공  
로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음악은 진실로 일상생활의  
리듬이기에 L.A. 음악 주간의 모든 활동에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2004년 1월 23일  
교장 로살바 만리크 배상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Fair Avenue Elementary School**  
6501 Fair Avenue, North Hollywood, CA, 91606  
Telephone: (818)761-5444 Fax: (818)762-5316

Roy Romer  
Superintendent  
Rosalba Manrique  
Principal

Susana Contreras  
Assistant Principal  
Lynette Smith  
Assistant Principal

January 23, 2004

Dear Supreme Master Ching Hai and Margie Evans of Los Angeles Music Week,

On behalf of myself, the principal, and of our entire school community, Fair Avenue wishes to extend a very warm thank you for your generous gift of \$1,000. It was such an honor for us to see our very own John Balbuena receive an award recognition from Los Angeles Music Week. We are so grateful to have him as a part of our school community. Surely, he embodies and lives the very things your organization stands for.

I particularly love the Chinese proverb in the letter by Vicki Evans printed in the awards program: "If your vision is for a year, plant wheat. If your vision is for ten years, plant trees. If your vision is for a lifetime, plant people." As a school administrator, I can say that we are very busy planting people and John Balbuena's contribution to our efforts is great.

Again, thank you for your gift. We laud and support the work of Los Angeles Music Week because music is, indeed, the rhythm of daily life.

Sincerely,

*Rosalba Manrique*  
**Rosalba Manrique**  
Principal  
Fair Avenue Elementary School  
6501 Fair Avenue, North Hollywood, CA 91606-2606



THE ACCELERATED SCHOOL  
Elementary School of the Year

January 8, 2004

MEMO TO: SUPERINTENDENT  
FROM: MARGIE EVANS  
SUBJECT: Los Angeles Music Week  
C/O: Box 412-240  
Los Angeles, CA 90045

Dear Ms. Evans:

We would like to thank Los Angeles Music Week for its support of The Accelerated School (TAS). Your gift of \$1,000, will allow us to continue to offer our students and community a Creative Arts Program this academic year.

The Creative Arts Program introduces students to new forms of learning, new depths of understanding, and new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through visual and performing arts.

Thanks to your support, TAS can make a contribution not only to all our students, their families and the immediate community, but it can create a national standard for quality arts education, the impact of which will be felt by teachers and students across the country.

We hope you will be able to visit The Accelerated School this year. It's always a pleasure to be able to show you your investment in action.

Sincerely,  
*Kevin David*  
Kevin David  
Principal, Co-Director

*Jonathan Williams*  
Jonathan Williams  
Principal, Co-Director

액셀러레이티드 스쿨 또한 이번 학년도에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화 1천 달러를 기부해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주: 관련 보도 내용은 144호를 참고하세요.)



## 이란 동수들의 감사 편지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님께

세계 각지의 이란 동수들을 대표해 밤 지진 이재민들에게 세심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저희의 가장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포모사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르투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센터	228-4-410-948
팔리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부에노스아이레스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 볼리비아	Mr. Wu Chao Shien	591-4625964
산타크루즈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트리니다드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 브라질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벨렘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레시페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상파울루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오타와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라세레나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보고타	센터	506-2200-753
★ 코스타리카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산호세		
★ 온두라스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테구시갈파		
★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칼리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D.F.		52-55-5852-1256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tec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마나과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파라과이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아순시온		
★ 페루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쿠스코		





리마	센터	51-1-471647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hawaiictr@hotmail.com
		edyter@viabcp.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DorothySakata@aol.com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punocentropetu@yahoo.es			caominhtran@yahoo.com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larv@terra.com.pe			Duchanh@aol.com
★ 살바도르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quijano_manuel@yahoo.es			FNGUYEN@MAIL.STATE.KY.US
★ 트리니다드 섬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Mr. Ray Alibocus	1-868-637-1054			jlfontenot@hotmail.com
		alibocus@tstt.net.tt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 미국					MARYLANDCENTER@yahoo.com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메사추세츠 :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kennynngoaz@hotmail.com			shinemound@earthlink.net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Ms. Gan Mai-Ky	1-508-791-7316
		bobedj@cox-internet.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캘리포니아 :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ading02000@yahoo.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tliln54@hotmail.com			quach001@msn.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미주리 :		
		SanGabriel99@hotmail.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MSteck5208@aol.com
		gmartin0999@hotmai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gchen@umr.edu
		saccenter.ca@usa.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croberts@lps.org
		quanyinsd@juno.com	네바다 :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c_newjersey@yahoo.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sfcenter@hotmail.com			JohnChou@ymusa.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Sophie.Lapaire@eng.sun.com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Edgar-Teresa@worldnet.att.net			dong@phys.columbia.edu
	Mr. Loc Petrus	1-510-276-4631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petrusl2k@earthlink.net			dcouch@rochester.rr.com
	Mr. Jim Su	1-408-253-8516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SumaJim@aol.com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ohiocenter@yahoo.com
		torahi@ureach.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플로리다 :					wisdmeeye@ao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Thaidbzdq@msn.com			LTRAN2292@aol.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오리건 :		
		tls1095@earthlink.net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ekalbekim@yahoo.com			oregon_center90@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georgiacenter@hotmail.com			youping320@yahoo.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인도네시아		shive@cal.vsnl.net.in
텍사스 :			발리	센터	62-361-231-040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smch_bali@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자카르타	센터	wibawa001@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62-21-6319066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Tai Eng Chew	smch-jkt@dnet.net.id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Ms. Lie Ik Chin	62-21-6319061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마젤랑		62-21-6510218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말랑	Ms. Murniati Kamarga	finance1@ueii.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62-21-3840845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Mr. I Ketut P. Swastika	hai@cbn.net.id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Mr. Njo Kwat Gone	62-21-7364470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62-293-367-031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Mr. Judy R. Wartono	irn_up@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62-341-491-188
워싱턴 :				Mr. Henry Soekianto	yudi_wartono@telkom.net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s. Merlinda Sjaifuddin	62-341-325-832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62-61-4514656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수라바야	센터	smch_medan@hotmail.com
★ 푸에르토리코					62-31-5612880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육아카르타	Mr. Harry	ahimsasb@indosat.net.id
***아시아***					62-31-594-5868
★ 포모사			★ 이스라엘	Mr. Augustinus	harry_1@sby.dnet.net.id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Yaron Adari	62-274-588-105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t.adianingtyas@eudoramail.com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972-9-866-6247
	Mr. Chu, Chen Pei	886-37-724726	★ 일본		ya05@netvision.net.il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군마	Ms. Hiroko Ichiba	
★ 홍콩	센터	852-27495534			81-27-9961022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다테야마	센터	divinalv@mtb.biglobe.ne.jp
★ 인도					81-470-209127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tateyama_lg@yahoo.co.jp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81-3-3307-1643
				Ms. Yoshie Takeda	cal13840@pop07.odn.ne.jp
			★ 한국		81-90-3963-0755
				출판사	y-plus@f6.dion.ne.jp
			영동	영동 센터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서울	서울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유태인		02-577-2158
			이지자		quanyim@unitel.co.kr
			부산	부산 센터	02-795-3927
					02-599-1701
			송호준		051-581-9200
			황상원		chinghaibusan@hanmail.net
			전주	전주 센터	051-957-4552
					051-805-7283
			신현창		063-274-7553
			인천	인천 센터	shc5824@hanmail.net
			이재문		063-254-5824
			대구	대구 센터	032-579-5351
					032-244-1250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54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1호





<b>★ 네덜란드</b>		Razahidah@hotmail.com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vo-khong@wanadoo.nl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b>★ 헝가리</b>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부다페스트	Mr. Lux Tamas	36-304273364	<b>★ 스코틀랜드</b>		
	Ms. Dora Seres	36-1379-1924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b>★ 아일랜드</b>			<b>*** 오세아니아 ***</b>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b>★ 호주</b>		
<b>★ 노르웨이</b>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b>★ 폴란드</b>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우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마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b>★ 포르투갈</b>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b>★ 러시아</b>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b>★ 슬로베니아</b>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퍼스	센터	61-8-9242-1189
<b>★ 스페인</b>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b>★ 뉴질랜드</b>		
<b>★ 스웨덴</b>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말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크라이스트처치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해밀턴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b>★ 스위스</b>			넬슨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b>★ 영국</b>					

# 농 음

## -순도 높은 창작성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색은 '농음'이다. 단순함에서 비롯된 기풍은 매우 강렬하고 대범하며, 색채의 사용도 대담하다. 또한 작위성이 배제돼 매우 순수하며, 인위적인 흔적이나 허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클레어 천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내면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돼 있으며 영적 가치가 매우 풍부하다. 예술적으로 보자면 이 작품들은 세계 정상급 수준의 걸작들이다.

달밤: '신기원'과 마찬가지로 신비스런 분위기가 한껏 풍기는 이 작품은 고요한 느낌을 주지만, 구도는 매우 대담하고 강렬하다. 놀라운 점은 이 대담하고 강렬한 구도가 그림 전체에서 발산되는 평온한 느낌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매우 심원한 느낌을 준다.

산죽과: 칭하이 무상사의 작품 중에는 때로 그녀 자신이 스스로 그림을 터득한 화가라는 인상을 자아내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 다른 몇몇 작품들은 기법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런 작품 중에서 '산죽과'는 구성과 색채 사용에 있어 단연 돋보인다. 색깔 중에는 사용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이 있다. 붉은색을 예로 들자면 잘못 사용하면 거슬리거나 저속해 보이기 쉬운데, '산죽과'에 사용된 붉은색은 매우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준다. 이는 붉은색을 가장 잘 활용한 마티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일류 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분투: 이 작품에서 사용된 대담하고 활기찬 색채는 전통적인 원근 개념을 깨트린다. 듬직하게 곳곳이 서 있는 전나무들은 스스로 그림을 깨우친 화가에 의해 단순한 필치로 그려졌고, 어쩌면 호수에 비친 모습일 수도 있는 경사진 푸른 들판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진 않았다. 그러나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 방향으로 쭉쭉 뻗은 큰 붓 자국은 비견할 수 없는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어 낸다. 전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지만 부조화는 전혀 느낄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이 묘한 조화로우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주: 앙리 마티스(1869-1954): 1905년 파리에서 시작된 야수파의 지도자로 이름을 떨친 화가. 서양 미술사에서 그의 지위는 피카소와 필적할 만했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색채 화가로 추앙받고 있다.

### 클레어 천의 약력

클레어 천은 어린 시절부터 종종 부친을 따라 박물관이나 연주회를 다니곤 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술적 열정을 함께 나눌 프랑스인 남편을 만났다. 진정한 삶과 예술에 대한 사랑은 그녀에게 풍부한 예술 경험을 쌓게 했으며 나아가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활동으로 이끌었다. 시, 그림, 조각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 그녀의 천부적인 자질은 타이베이 문예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보통 '생활의 시인'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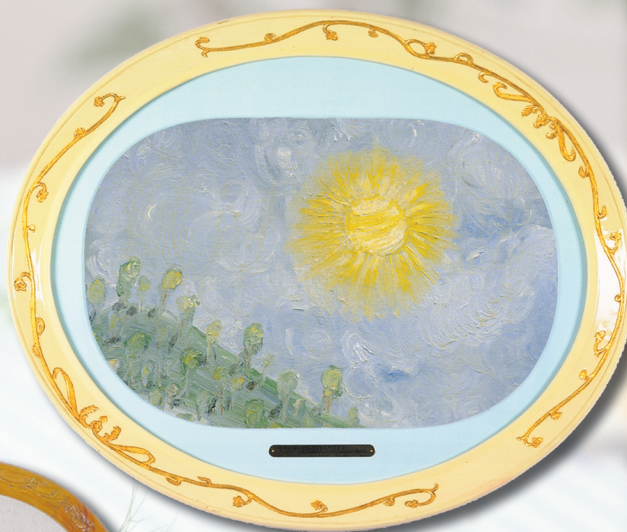
#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작품



산죽과



신기원



달밤



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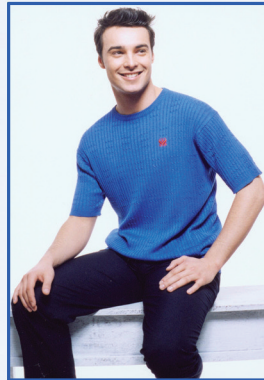


대자연의 산물인 린넨으로 직조된 니트는  
피부를 편히 숨쉬게 하고  
가볍고 편안하고 홀가분한 느낌을 준다.



2004

S.M. 천의 봄 · 여름 컬렉션



밝은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  
상큼하게 빛난다.

올 여름을  
짙고 발랄한 색채로  
물들이자.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S.M. 천의 컬렉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cj.com>

